축소폐쇄가 계속되던 일본의 면방

최신 방적 시설의 도입은 꾸준히 이어져

중국에서는 일본이나 우리 나라의 전국 면방적 시설규모에 버금 갈 만큼 거대한 공장이 단일기업에 의해 설립되고 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많은 공장들이 축소되거나 폐쇄되어 왔으며, 이들의 상당 시설은 해외로 옮겨져 가동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일부 면방회사들은, 물론 큰 규모는 아니지만, 최신방적시설들을 꾸준히 도입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일본의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창의력을 살린 신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독특한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회사들이다.

구라보는 2002년 10월에 "(주)도요다자동직기"가 개발한 콤팩트 정방기 1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기계의 콤팩트 · 방적법은 링정방기를 개량하여 프론트 · 로울러에서 흘러나오는 섬유속을 소용돌이치는 압축공기로 응축시키면서 꼬임을 줘서 뽑는다. 이 면사는 잔털이 아주 적고, 굵기의 균제도가 좋고, 강력이나 신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라보는 일본에서는 최초로 콤팩트 정방기를 구입하여 캐주얼 옷 소재를 생산할 예정이며, 시장의 반응에 따라 증설할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구라보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서 각종 실의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유명한 다이쇼(大正)방적도 도요다자동직기에서 만든 콤팩트 정방기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미 섬유속을 빨아들이는 장치를 제외한 본체 부분 2대를 도입 설치하여 가동중이며, 착탈(着脫)이 가능한 섬유속 흡인(吸引)장치는 1대분을 주문해 놓고 있다.

닛신보도 2002년 6월에 도요다자동직기의 콤팩트 정방기를 시험도입하여,

셔츠 소재의 생산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시즈오까(靜岡)현의 후지에다(藤枝)공장에 설치하고, 콤팩트사로 다양한 시제품을 뽑아 각종 선염직물을 시직하고 있어 머지않아 본격 도입이 결정될 전망이다.

오사카(大阪)에 있는 다이이찌(第一)보는 내복용 소재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2001년 가을에 최신 소형 결속방기(結束紡機) 16추짜리 한 대를 구입하여 규슈(九州)의 구마모토(熊本)현에 있는 아라오(荒尾)공장에 설치하고 시제품을 제조하여 신상품의 윤곽이 결정됨으로써, 2002년 여름에 72추짜리 결속방기를 한 대 구입하여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이 결속방기는 실을 구성하는 모든 섬유의 한쪽 끝이 실의 심부(芯部)속에 묻히고 다른 섬유의 끝은 섬유속을 묶어주는 모양의 실을 뽑으므로 필링(pilling)발생이 아주 적은 것이 이 실의 특징이라고 한다. 그 동안 스위스의 리터사와 독일의 쥣센사가 개발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는 콤팩트 정방기는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에 50만추이상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며, 최신 결속방기도 미국을 중심으로 300대 이상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방적회사들은 단지 새로 개발된 최신 방적기를 구입하고 이에 의존하여 신상품을 만들어서는 맹열히 추격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경쟁을 피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구라보에서는 “콤팩트 방적기의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가능성을 찾아내어 독자적인 기술을 가미하여 신상품을 개발하겠다”고 기술부가 열을 올리고 있다. 다이이찌보에서도 “외국에서는 이 결속방기로 보통 실을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독창적인 신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일본 면방의 저력을 엿보게 한다.